

5/ 2000년대 이후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인 표상

한국인 등장인물의 (비)한국성*

심정명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도쿄의 거리

심정명(沈正明)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오사카대학에서 내셔널리즘과 일본 현대소설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로 원폭, 오키나와 전투 등 전쟁의 기억을 중심으로 전후문학을 연구해 왔으며 재난, 빈곤, 격차 등과 관련해 일본의 현대소설을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 「문학적 상상을 통한 재난 경험의 확장: 고바야시 에리카 『트리니티, 트리니티, 트리니티』와 방사능의 기억」(2021), 「격차사회와 행복의 분단: 기무라 유스케 「고양이의 식빵 자세를 사수하는 당」을 중심으로」(2022)가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2.27.154>

1. 들어가며

1983년에 출간된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의 『서울 연습문제』(ソウルの練習問題)는 당시의 일본 사회에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한국·한국인의 이미지를 전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30대 초반이던 세키카와는 1980년 전후의 서울 풍경이나, 연구자도 아니고 주재원이나 외교부 직원이 아닌데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상한 일본인으로서 한국인과 접했던 경험을 ‘이문화’(異文化) 탐색이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유머러스하게 풀어 놓는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관점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기념비적인 기행문으로 평가받게 된다.¹ 물론 한국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어 놓은 책들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했다. 주로 출판물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적한 데이 다이킨(鄭大均)은 1980년대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문화적·오락적·대중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한다.² 그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국제화론이나 이문화론 같은 시대 조류와 더불어 한국인과의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이문화로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일종의 한국 붐을 가져오는데, 『서울 연습문제』는 이러한 현상의 선두주자 중 하나였다. 그리하여 이문화로서의 한국의 일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를 대표하는 이 책은 “한국 이 문화 체험의 명저”라 불릴 만큼 지속적인 인기를 얻었다.³

『서울 연습문제』에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이미 대단히 낯설게 느껴질 한국의 과거 풍경도 단편적으로 소개되지만, 뜻밖에도 여전히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들도 그려진다.⁴ 예를 들면 한국을 찾은 일본

1 「関川夏央 独裁下の韓国「怖い」「暗い」印象変えた」,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836479.html>; 「日本人の韓国観を大きく変えるきっかけになったルポルタージュ」,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32407640Z20C18A6TM1000/> 등 참조(최종 검색일: 2022. 5. 21.).

2 鄭大均, 『韓國のイメージ: 戦後日本人の隣国観』, 中央公論新社, 2010, Kindle Edition.

3 平田由紀恵, 「第2章 韓流とその「愛のあと」: 韓国を消費する女性とその表象をめぐる」, 石田佐恵子 他 編, 『ポスト韓流のメディア社会学』,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08, 39쪽.

인들은 한국 음식의 풍성한 양이나 맛에 만족하리라는 것, 한국 여성들은 대체로 ‘터프’하다는 것, 한국인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 일본과 비교해도 연령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 등이 그렇다. 또 세키카와는 서울에 여러 번 체재하는 동안 호텔의 바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과 알게 되는데, 한번은 둘이서 대화하다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영어 발음을 둘러싸고 작은 언쟁이 벌어진다. 여성의 ‘텔런트’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세키카와는 그것이 한국인의 영어 발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여성은 일본인들이야말로 영어 발음을 정말로 못한다, 일본인이 영어를 못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반론한다. 2022년인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인터넷 유저들이 종종 서로의 영어 발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두 사람의 대화가 이와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데에 놀랄 것이다. 즉 ‘이문화로서의’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해 80년대에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들은 완전히 정착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듯, 2000년대 이후의 이른바 ‘한류 붐’은 일본 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변화시켰다. 가령 『도요게이지사이신문』(東洋經濟新聞)의 후쿠다 게이스케(福田恵介)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드라마 〈겨울 소나타〉, 〈대장금〉 등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나 연예계에 대한 정보가 일본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고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 또한 늘어났다고 지적한다.⁵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한류’라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를 경험한 200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일본어문학에서 한국인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물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직접적인 인적 왕래가 예전에 비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

4 関川夏央, 『新装版 ソウルの練習問題』, 集英社e文庫, 2014.

5 福田恵介, 「日韓メディアの変容と戦後日韓関係」, 『現代韓国朝鮮研究』 第19号, 2019. 11., 45쪽. 이 외에도 ‘한류’ 현상이 한일 양국 간의 심리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동시에 한국인의 이미지 개선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한영균, 「일본인의 한류수용에 따른 한국인식의 변화」, 『韓日關係史研究』 제48집, 한일관계사학회, 2014, 383~420쪽. 일본에서 ‘한류’가 한국 이미지의 제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정리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국 문화의 유행이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다고 결론내리는 임영인·임은규, 「한류(韓流) 문화를 통한 한국 이미지 변용에 관한 연구」, 『日語日文學研究』 제8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12, 449~471쪽 등 참조.

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각각의 사회나 사람들의 모습이 현실을 리얼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더 쉽게 또 더 자주 소비되면서 몇몇 특정한 이미지들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즉 이문화이자 타자로서 존재했던 한국과 한국인이 대중문화의 활발한 교류나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함께 조금 더 일상적인 풍경으로서 들어온 시대에, 일본어문학은 한국인 등장인물을 어떻게 ‘한국인’으로, 혹은 어떻게 그 같은 ‘한국인성’에 수렴되지 않는 속성의 인물로서 그리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단지 한국인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인 등장인물을 만들어 내고 읽는 데에 어떠한 ‘한국인성’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이때 ‘한국인성’이란 자못 ‘한국인답다’고 받아들여지는 일련의 이미지들이나 다양한 문화적 표식들을 말한다. 이는 먼저 작가가 한국인 인물을 조형하는 과정에서 인물에 부여하는 여러 특질들과 관련되겠지만, 무엇보다 독자들이 그 같은 인물을 ‘한국인’의 표상으로서 읽어 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후루이치 노리토시(古市憲壽), 아사이 료(朝井リョウ) 등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한국인 등장인물이 어떻게 젊은 세대 일본인들이 일본 안팎에서 겪는 일상의 일부로서 등장하는지를 볼 것이다. 한편 일본 사회의 구성원 자체가 이전보다 다양화되면서 주로 재일(在日) 코리안⁶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좀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르게 되었는데, 이 같은 변화는 호시노 도모유키(星野智幸)와 같은 작가의 작품에서 재일 코리안 등장인물이 어떠한 성격으로 그려지고 있는지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재일문학이 가지고 있던 한국/한국인과 일본/일본인의 경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일본 사회의 다른 소수자들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다뤄지고 있

6 본 논문에서는 재일 조선인, 재일 한국인 등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재일 코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단, 작품에서 인물이 재일 한국인으로 명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따랐다.

는지를 볼 것이다. 재일이라는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물음을 주제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재일 한국인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는 히라노 게이치로(平野啓
 一郎)의 『한 남자』(ある男) 역시, 일본에서 한국/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사회적 위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본론 후반부에서는 또한 후카자와 우시오(深沢潮)와 같은 재일 코리안
 출신 작가의 『초록과 빨강』(緑と赤)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한류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다고 이야기된 이래의 한
 국·한국인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비)한국인성 그리고 이것이 문화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양
 상은 오늘날 외국문학에서 나타나는 한국/한국인의 표상을 생각하는 것 자
 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 준다. 이 같은 작품들을
 읽어 나감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한국인상에 대한
 분석이 이러한 문학을 읽는 한국과 일본의 독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의 읽기
 를 유도하며, 그것이 결국 한국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와 어떻게 상호작용
 할 수 있을지를 묻고자 한다.

2. 일본어문학의 (재일)한국인 등장인물들: 한국인성의 소재(所在)

사회학자인 후루이치 노리토시의 『에스크 미 와이』(アスク・ミー・ホワイ)는 암
 스테르담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한 일본인 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연애소설이다. 주인공인 야마토(ヤマト)는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를 따라
 프리랜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네덜란드로 이주했지만,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된 여자 친구와 헤어진 지금은 자신이 왜 네덜란드에서 생활하고 있
 는지를 자문하며 일본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소설은 야마토가 마약 의혹으
 로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춘 배우 미나토 소마(港颯真)와 암스테르담에서 우
 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야마토의 주변인
 물로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이들 중 하나가 같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인 ‘강’(カン)이다. 야마토의 사랑 이야기에서 거의 비중이랄 것도 없는 이 인물에게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구직난인 서울을 빠져나와 유럽에서 배낭 여행객으로 전전하다 네덜란드에 정착했다는 다소 구체적인 설정이 주어졌다. “태어난 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나와 똑같은 텐데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자랑”인 강에게 야마토는 “연세대는 일본의 게이오대학과 똑같은 레벨이야.”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 수 없다.⁷ 이 구절을 읽으면 명문대를 졸업한 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한 20대 한국 남성의 어떤 전형을 금세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소설에는 물론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과 이 같은 성격을 연결시키거나 한국인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다루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일본인 남성인 야마토와 마찬가지로 동양인인 강 역시 네덜란드인에게는 인기가 없다는 사실 정도만을 짚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소설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한국인 등장인물이 어떠한 대표적 이미지로서 그려지고 있느냐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일본어문학에서 한국인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⁸ 『애스크 미 와이』가 암스테르담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서 다양한 국적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가령 아사이 료의 『죽을 이유를 찾아 살아가고 있어』(死がいを求めて生きているの)와 같은 작품을 예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아사이 료는 고등학교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스쿨 카스트를 암시한 청춘소설 『내 친구 기리시마 동아리 그만둔대』(桐島, 部活やめるってよ)(集英社, 2010/한국어 번역은 자음과모음, 2013)나 취업 활동과 SNS를 소재로 대학생들의 인간관계를 그린 『누구』(何者)(新潮社, 2012/한국어 번역은 은행나무, 2013) 등 동시대의 젊은 세대를 리얼하게 써낸 작품들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가이다. 2019년에 출간된 『죽을 이유를 찾아 살아가고 있어』 역시 대립이나 경쟁을 의식적으로 배제해 온 헤이세이(平

7 古市憲寿, 『アスク・ミー・ホワイ』, マガジンハウス, 2020, 11~12쪽.

8 일본인인 주인공의 이름이 야마토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인물의 성인 ‘カン’이 ‘韓國’의 일본어 첫 발음과 같은 것에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이 소설 자체만으로는 각각의 인물들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전형으로서 그려졌다고 해석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成)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디에서 ‘살기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다룬다.⁹ 소설의 중심이 되는 것은 모종의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는 미나미 도모야(南水智也)와 매일같이 그에게 병문안을 오는 호리키타 유스케(堀北雄介)라는 두 인물이다. 도모야를 담당하는 젊은 간호사를 시작으로 두 사람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온 전학생, 고등학교에서 도모야와 같은 수영부였던 여학생 등 주변 인물들의 눈을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두 사람의 친구관계에 숨겨진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소설의 내용이다. 그중 한국인 유학생인 이민준이 등장하는 것은 두 사람이 홋카이도(北海道) 대학에 재학할 당시를 다룬 6장과 7장이다.

이 6장과 7장의 화자는 안도 요시키(安藤与志樹)라는 홋카이도대학 학생인데, 그는 일종의 사운드데모처럼 학내에서 음악에 맞춰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 ‘레이브’라는 활동을 하는 모임 RAVERS를 주도하고 있다. “반경 5미터를 바꾸고자 분투하는 젊은이들을 조명하는 특집 방송” <차세대의 최북단>이라는 토론방송에 출연하게 된 요시키는 사전 인터뷰에서 음악에 점점 더 많은 주장을 담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한다.

“남쪽은 유학생 존이라 불리는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많은 캠퍼스인데, 거기는 [대학축제의: 인용자] 실행위원도 순찰을 하러 오지 않으니깐 완전 노리기 좋죠. 거기서는 아침까지 음악도 틀 수 있고 술 먹고 소란을 피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레이브를 하니까 유학생들이 섞여 들어왔어요.” …

“그랬더니 중국인 애가 센카쿠열도에 대해 노래를 부르지 않나, 한국인 애가 독도(竹島)나 위안부 문제를 랩처럼 외치지를 않나…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지만 곧잘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하게 됐죠. 이제까지도 레이브를 하면서 일상의 불만이나 푸념을 외치는, 랩으로 치면 사이퍼 같은 걸 해 보기도 했는

9 「インタビュー 朝井リョウさん「素晴らしき“多様性”時代の影にある地獄」」, https://www3.nhk.or.jp/news/special/heisei/interview/interview_07.html(최종 검색일: 2022. 5. 21.).

데, 뭔가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야말로 음악에 더 많이 실어서 말신해야겠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일본인은 정치 이야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¹⁰

이렇듯 한국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신하는 가운데, 일본인들은 호소하고 싶은 것이 없느냐는 물음에 이들이 즉흥적으로 응답한 말이 식중독 때문에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생간이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유학생들도 “일본인답다”고 말하며 웃었다는 장면에서,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의 젊은 세대와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한국인,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낯설지 않은 대립쌍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음을 일단 확인할 수 있다.

요시키가 홋카이도대학 전통의 ‘징기스칸 파티’를 부활시키자는 운동을 하는 유스케나 NPO법인의 대표로서 홋카이도의 노숙자들에게 방한구를 나눠 주는 활동을 하는 하타노 메구미(波多野めぐみ),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가보다 개인과 개인. 일본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소개되는 이민준과 알게 되는 것은 이 토론방송을 촬영하면서이다. 방송에서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같은 물음이나 원전 재가동,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대립, 저출생 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젊은 출연진들은 ‘병아리 혁명가들’[革命の卵たち]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교류를 이어 간다. 첫 번째 술자리에서 그들은 각자의 사회적인 관심사나 활동이 방송 출연 이후 한층 더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방송에서 일본의 국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이민준은 일본문화에 대한 조예뿐 아니라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의문 역시도 더 깊어진 상태다. 그들은 다시금 원전재가동이나 센카쿠열도, 시리아 분쟁, 난민, 빈곤, 여남격차, LGBT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이러한 주제에 관한 별다른 지식이 없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요시키 역시

10 朝井リョウ, 『死がいを求めて生きているの』, 中央公論新社, 2019, 168쪽. 인용문의 번역은 필자에 의함. 한국어 번역은 『죽을 이유를 찾아 살아간다』, 비에이블, 2022.

지만 민중을 위해 자위대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고 호언하고, 메구미는 군대에 갈 수 없는 이상 자신은 지금 하는 일에 더 진심을 다해 몸을 바쳐야만 한다고 초조해한다. 즉 일본에는 없는 한국의 병역이란 이들에게는 사회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로서 인식되며, 가뜩이나 사회문제나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일본의 젊은이들과는 달리 한국 남성에게 부과된 국방의 의무는 그들에게 자신이 속한 국가를 지키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렇듯 『죽을 이유를 찾아 살아가고 있어』에서 한국인 남성 이민준은 (현실의 한국인 남성들이 군 입대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아마도 별로 관계 없이) 어떠한 가치도 절대적이지 않기에 인생의 경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권장되는 다양성의 시대에 오히려 자신의 절대적인 존재가치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헤이세이 시대의 일본 젊은이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대조항으로 설정되어 있는 셈이다.¹³ 그리고 이 또한, 이문화나 미지의 타자로서의 한국·한국인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키기보다, 한국인이나 중국인 유학생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들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일본 대학생들의 현실과 연동하고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돌파한 2019년에 발표된 이 소설에서는 젊은 세대의 일상과 한국이라는 타자가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으며,¹⁴ 그러한 가운데 가상의 한국인 젊은이상이 자신들의 폐쇄된 삶에 일종의 대안으로서 용이하게 상상될 수 있는 가까운 타자로서 등장

13 작가의 이 같은 문제의식은 재특회와 같은 활동이 어떻게 젊은 층의 불만이나 불안을 견제하는 데에 성공했는지에 관한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의 고찰과도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재특회 활동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한 젊은 우익 활동가는 인터뷰에서 “요컨대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확고한 입각점을 얻지 못한다는 불안 속에서 그들은 간신히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발견’한 거라 생각해요. 계기는 좌익 비판이든 재일 문제든 뭐라도 상관없었죠.”라고 해설하는데, 그것은 많은 재특회 멤버들이 이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대답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安田浩一, 『ネットと愛國』, 講談社, 2015, Kindle Edition. 『죽을 이유를 찾아 살아가고 있어』 또한 징기스칸 파티를 부활시키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 유스케가 기숙사의 자치를 지키는 활동으로 옮겨 갔다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훈련한다는 수상쩍은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활동이란 그 내용물과는 무관하다는 무관하게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계기로서 존재함을 보여 준다.

14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5월 1일 시점의 외국인 유학생은 31만 2,214명, 그중 한국인 유학생은 1만 8,338명이다. 「2019年の外国人留学生は約31万人, 政府目標を達成」, <https://resemom.jp/article/2020/04/23/55965.html>(최종 검색일: 2022. 5. 21.).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전과는 달리 일본 사회에 자연스럽게 또 가시적으로 등장하게 된 한국을 그리는 것이 호시노 도모유키의 『숙는 사람』(だまされ屋さん)이다. 이 소설은 가족을 단힌 공동체가 아니라 다초점적으로 확대되며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형성되는 공동성의 기초단위로서 상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나쓰카와(夏川) 가족이다. 70대인 어머니 아키요(秋代)와 야사시(優志), 도모에(巴), 하루요시(春好)라는 세 자녀로 이루어진 이 가족은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있다. 어느 날 홀로 사는 아키요에게 도모에와 가족이 될 예정이라는 미사토(未彩人)라는 남성이 불쑥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에는, 야사시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재일 한국인 이화(梨花)와 브라질계 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딸 사라(沙良)와 함께 비혼모로 살고 있는 도모에처럼, 일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와 동시에 아키요나 미사토의 어머니가 한류 팬이라는 것, 미사토의 아버지가 근처 한국어학원에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했을 뿐 아니라 단골 한국식자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에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등이 어디까지나 가볍게 언급된다.

한편 미사토는 아키요를 찾아오기 전에 공원의 풋살 모임에서 우연히 하루요시와 알게 되고, 그를 ‘형님’(ヒョンニム)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 한국어 형님임을 알게 된 하루요시가 “나는 네 형이 아니야!”라고 반박하자 미사토가 “아저씨(アジッシ)가 좋아요?”라고 묻는 장면을 통해 이 소설이 가령 한류나 한국음식, 한국어학원뿐 아니라 파편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어들이 이미 일본 사회에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가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여기서는 이화가 재일 한국인이라는 설정 또한 그가 복잡한 아

15 일본어 웹에서는 이에 대한 재미있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다. 한 독자는 하루요시를 형님이라 부르는 미사토가 재일 한국인이라는 서술이 없기는 하지만 “거리감 없이 타인의 영역에 서슴없이 들어오는 건 일본인에게 없는 특성”이라며 그를 한국인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어떻게 한국인을 식별하는 데에 거꾸로 동원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가령 ‘반일’적이라 여겨지는 주장을 하는 작가나 연구자들이 ‘재일 한국인’으로 분류되는 예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발견된다. 그리고 한국인은 ‘반일’이라는 것 또한 80년대부터 줄곧 남아 있는 한

이덴티티를 가진 인물임을 보여 줄 뿐, 이것이 ‘재일’이라는 존재 자체를 둘러싼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다.¹⁶ 오히려 그것은 이제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야사시와 싸우고 도모에의 집으로 간 이화가 자신의 내력을 말하는 부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거의 가족처럼 도모에의 집에 드나들며 사라와도 가까워진 유미(夕海)와 하루요시의 아내인 쓰키미(月美)도 도모에와 함께 이화의 이야기를 듣는다. 조선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다 그만둔 뒤 한국에 유학해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는 이화에게 도모에나 유미는 “뿌리는 조선에 있는데 말을 다른 외국인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건 힘들지 않아?”, “여권은 어떻게 했어요?” 같은 질문을 스스럼없이 던진다. 그럴 때마다 쓰키미는 이들이 이렇게 이화의 “섬세한 영역”을 건드린다는 데에 긴장하지만, 이화 역시 아무렇지 않게 “그때까지는 조선적이었는데 한국적으로 바꾸고 그쪽으로 갔어. 어거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 뭐야” 같은 대답을 내놓는다.¹⁷ 이화 자신은 마이너리티 당사자의 목소리를 선취하고 해설하는 야사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사시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소설에서 이는 재일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은 경험이라기보다는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과 관련되며, 이화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읊아매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재일 한국인인 것을 여성인 것과 나란히 놓는다. 그 바탕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어느 민족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뻔 순수한 인간상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놓여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렇게 개인을 규정하는 사회적인 틀 중 하나로서 재일이나 한국인이라는 조건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국인 이미지들 중 하나다.

16 실제로 작자인 호시노는 인터뷰에서 “재일의 문제를 쓰려고 의식했다기보다는 일본에 많이 있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재일인 인물로서 등장시켰습니다. 물론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품고 있는 생각은 있지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星野智幸さん『だまされ屋さん』』, 『WEBきらら』 2021년 1月号, https://shosetsu-maru.com/interviews/authors/quilala_pickup/148(최종 검색일: 2022. 5. 21.).

17 星野智幸, 『だまされ屋さん』, 中央公論新社, 2020, 120쪽.

히라노 게이이치로의 『한 남자』 또한 제일 한국인이라는 특정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갈등을 주제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귀화한 제일 3세인 변호사 기도 아키라(城戸章良)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소설 자체는 인간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묻고 있기에, 기도가 이 같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타인과 호적과 과거를 맞바꾸어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간 다니구치라는 인물에게 그가 다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전개와 부합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아내와의 관계나 변호사라는 직업 등 기도라는 인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로서 등장할 뿐으로, 기도를 제일 3세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소설의 줄거리나 주제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설이 기도가 제일 3세라는 설정에 무관심한 것 또한 아니다.

기도가 제일 3세라는 서술은 소설의 앞부분에 다소 갑작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설정 중 하나로서 등장한다. 의뢰인인 리에(里枝)는 기도에게 ‘다니구치 다이스케’(谷口大祐)라는 이름의 죽은 남편이 실은 ‘다니구치 다이스케’가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라는 사정을 털어놓는다. 더욱이 이 ‘다니구치 다이스케’와 같은 이름과 과거를 가진 사람은 호적상 실재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이 기묘한 이야기를 들은 기도는 이름과 신분을 속이는 것쯤은 사실 드물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제일 3세이기 때문에 본명을 숨기고 싶은 사람의 사정은 다소 이해”¹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도는 부모님에게 ‘민족의식’ 같은 것을 배운 적도 없고 코리안타운에서 자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라는 성을 쓰던 시절에도 차별을 별로 경험한 적은 없으며, 한국인과 한국어를 오히려 외국인과 외국어처럼 느끼면서 살아왔다. 결혼 허락을 구하러 찾아갔을 때 장인 또한 기도를 “제일이라고 해도 삼 대나 지났으면 어엿한 일본인이다.”¹⁹라는 말로 맞이한다. 그렇게 자신이 제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8 平野啓一郎, 『ある男』, 文藝春秋, 2018, 42쪽. 인용문의 번역은 필자에 의함. 한국어 번역은 『한 남자』, 현대문학, 2020 참조.

19 平野啓一郎, 『ある男』, 49쪽.

막연한 인식밖에 없던 기도가 타인에게 한국인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은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인터넷에서 간토(關東)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도 과거에 강도상해사건의 용의자인 재일 코리안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재일 출신임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폭로되며 비방을 당하고, 일본 사회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헤이트 스피치는 그를 주위 사람들의 편견이나 차별에 예민하게 만든다.

이렇듯 소설에는 일본의 배외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기서의 초점은 이러한 주어진 속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배제하는 것 자체이지 그 속성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아니다. 따라서 호적상의 신분이나 과거의 갖가지 기억, 가족을 포함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 중 어디에 인간을 그 인간으로서 동일화해 주는 것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하는 이 작품에서, 기도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은 ‘한 재일 3세 이야기’나 ‘한 변호사 이야기’와 같이 명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도 등치될 수 없을 정도인 그라는 인간의 복잡다단함은 당연하게도 재일 한국인 3세라는 아이덴티티로 귀결될 수 없는 것이다. 라이(John Lie)가 지적하듯, 일본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며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기도와 같은 재일 한국인들에게 에스닉한 가계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일 뿐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만일 재일 한국인의 정수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인의 뿌리를 가진 이들을 정당한 일본인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지속적인 차별에서 찾을 수 있다.²⁰ 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기도가 그 자신이 재일 한국인임을 의식하는 때는, 또 소설이 그를 다른 무엇보다 재일 한국인으로서 그려 내는 때는, 그 같은 차별과 배제의 시선이 ‘재일 한국인’을 뭉뚱그려 가리킬 때이다.

20 John Lie, "Ordinary (Korean) Japanese," in Sonia Ryang, ed.,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Routledge, 2005, pp. 201~206.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은 그 자신이 직업적으로 그 유지를 위해 힘쓰는 법 질서를 통해 실현된다. 그와 그의 가족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되고, 그들은 주권자로서 여기에 존재한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일시적으로라도 무효화되는 파멸적인 시간, 파멸적인 공간이 예외로서 발생한다면? “조선인을 죽여라!”라고 백주대낮에 당당히 도로 한복판에서 외치는 선동가들에게 그가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사색하는 섬세하고 복잡한 물음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아니, 그런 예외 같은 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닐까? 데모 소리에 자극받은 누군가가 이 일상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마음만 먹으면 ‘조선인’을 죽이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할 터이다.²¹

기도가 간토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도는 다니구치가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과 그 사이에 어떤 통로를 열어 놓았다고 느낀다. 여기서 제일 한국인이란 존재는 무엇보다도 비(非)일본인으로서 예외상황이 닥치면, 아니 그 언제라도 폭력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사실상 겉으로 봐서는 일본인과 확실히 구별되지 않는 한국인을 식별해 내는 표식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소설에서는 기도가 리에가 결혼한 남자가 실은 누구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수감 중인 호적 매매 브로커 오미우라(小見浦)를 수차례 찾아가는 장면을 그린다. 오미우라는 몇 마디 말도 채 나누기 전에 대뜸 기도에게 제일이지 않느냐고 물어서 기도를 놀라게 한다. 이목구비를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면회가 끝나자 이번에는 “선생님은 제일 같지 않은 제일이네요. 하지만 그건 곧 제일답다는 뜻이에요.”²²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다. 여기서 ‘제일 같음’이나 ‘제일다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적어도 이 소설 속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 오미우라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외

21 平野啓一郎, 『ある男』, 126쪽.

22 平野啓一郎, 『ある男』, 160쪽.

관판으로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없음을 물론이다. 더욱이 기도 자신은 재일로서의 피해자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동시에 스스로가 역사적인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일본 국민이라는 의식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그를 향해 ‘재일’이라고 지명하는 오미우라의 말을 옳은 것으로 만드는가? 이러한 물음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장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재일 한국인 소녀가 주인공인 후카자와 우시오의 『초록과 빨강』을 통해 이 같은 한국인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초록과 빨강』에 나타난 한국인: 한국인성의 구성

『속는 사람』을 읽은 독자들 중에는 어쩌면 빈틈없는 논리로 야사시를 다그치는 이화가 자못 한국 여성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아마 한국 여성이 ‘터프’하다는, 세키카와의 시대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2장에서 본 소설들은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한국인이라는 설정을 흔히 이야기되는 한국인의 어떤 성격들과 결합시키지는 않는다. 반면, 『한 남자』의 기도가 그랬듯 ‘한국인’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에 조금 더 의식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중에서도 일본 사회에서 평범한 일본인으로 성장한 재일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초록과 빨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일 코리안 출신인 후카자와는 『초록과 빨강』을 비롯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R-1문학상을 수상한 「가나에 아줌마」(金江のおばさん)가 수록된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縁を結うひと)(新潮文庫, 2016), 『버젓한 아버지에게』(ひとかどの父へ)(朝日文庫, 2018), 『바다를 안고 달에 잠들다』(海を抱いて月に眠る)(文藝春秋, 2018) 등 재일 한국인·조선인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여럿 발표하였다.²³ 이러한 작품들

23 한국어로는 「가나에 아줌마」, 「사주팔자」 등 6편이 수록된 『가나에 아줌마』(아르띠잔, 2019)를 비롯

을 통해 재일 한국인·조선인의 삶을 다양한 관계 맺기를 통해 보여 주어 재일문학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작가²⁴로 평가받기도 한다. 또 그는 2019년 9월에 『주간 포스트』(週刊ポスト)의 「한국은 필요 없다」 특집에 항의하여 에세이 연재를 중단하기도 하였는데, 이 소설이 배경으로 하는 것은 한류 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동시에 미디어의 험한 보도나 헤이트 스피치가 급증한 시기이기도 하다.²⁵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차별당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초록과 빨강』의 주인공인 지에/지영(知英)은 “당연히 나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열여섯 살에 자신이 “실은 한국인”이었음을 알게 된 인물이다.²⁶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싫거나 좋은 감정이 아예 없고, 재일 한국인이라고 해서 딱히 뭔가가 바뀌지도 않는다. 굳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기회도 별로 없는 지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강한 위화감을 품는다. 그럼에도 친구인 아즈사(梓)와 함께 해외 여행을 하게 되어 발급받은 초록색 여권 사진 옆에 있는 KIM JIYOUNG이라는 이름, 어머니가 건네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같은 것이 그에게 스스로가 ‘한국인임’을 일깨워 준다. 열여섯에 갑자기 한국인이 된 지에에게 이렇듯 한국인이란 일단 실제 자신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이 같은 서류상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시간적 배경이 반(反)한류 데모와 헤이트 스피치가 극성을 부리던 2013~2014년 무렵인 이 소설에서, 지에가 재일 한국인이

해 『애매한 사이』(아르띠잔, 2019), 『바다를 안고 달에 잠들다』(아르띠잔, 2021) 등이 번역되어 있다.

- 24 김계자, 「달라지는 재일코리안 서사: 후카자와 우시오의 문학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47집, 2018 참조.
- 25 다카 후미아키(高史明)는 트위터에서의 일본인, 코리안에 대한 언급 빈도를 분석하여 한류 붐을 경험한 2010년대 일본에서 한국인은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타자가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존재감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한국이나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적인 언급이 늘어났으며, 특히 2013년에는 헤이트 스피치가 급속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高史明, 『レイシズムを解剖する: 在日コリアンへの偏見とインターネット』, 勁草書房, 2015 참조.
- 26 深沢潮, 『緑と赤』, 小学館, 2019(초판은 実業之日本社, 2015), 10쪽.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로 표기함.

라는 것은 단지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에스닉 아이덴티티 중 하나에 그칠 수 없다. 그것은 지에가 “어차피 외국인일 바에야 미국인이나 영국인인 게 멋있고 좋았을 수도”(11쪽)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한국의’라는 소유격이 붙은 대중문화로서 한류가 유행하는 상황이 제일 한국인으로서의 지에의 위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소설은 많은 재일문학이 그렇듯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두 가지 아이덴티티 사이에서 주인공이 겪는 갈등을 그리는²⁷ 동시에 그것을 일본의 K-POP 인기와도 연결 짓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실제로 지에는 해외여행을 함께 가기로 한 친구 아즈사에게 자신이 한국인임을 털어놓기 위해 여권을 보여 주는데, K-POP 아이돌의 팬인 아즈사는 지에의 걱정이 무색하게 별로 놀라지 않고 “역시 지영이라고 하는구나. 이름 귀엽다”(27쪽)고 반응한다. 지에의 이름 한자가 한국 걸그룹 멤버의 이름과 같아서 어쩐지 ‘한국적이다’고 생각했다는 아즈사는 한국인 친구가 갖고 싶었다며 고개를 주억거릴 뿐 아니라, 원래 예정했던 괌이 아니라 서울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지에는 자신이 한국을 자기 나라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국을 좋아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아즈사는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지에는 완전 일본인으로 보이니까”, “따지자면 일본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잖아”(30쪽)라는 아즈사의 말도 완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두 가지 아이덴티티 사이에서 갈등하던 지에는 한국 여행에서 류헤이(龍平)라는 재일 한국인 남성과 알게 된다. 자신이 재일 한국인임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와 메시지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는 ‘지영’이라는 자신의 한국어 이름을 조금씩 받아들인다. 그런 한편, 험한 데모나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 그리고 거기에 겹쳐지는 간토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역사와 마주하면서 자신이 재일 한국인이라는 것에 점점 더 혼란을 느낀다. 소설은 이 같은 과정을 섬

27 Koichi Iwabuchi, “Political Correctness, Postcoloniality and the Self-representation of “Koreanness” in Japan,” in Sonia Ryang, ed.,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Routledge, 2005, p. 63.

세하게 그려 나가면서, 한류 붐이나 험한 데모에 대한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반응과 함께 한국/한국인과 일본/일본인의 경계를 둘러싼 물음을 의식적으로 다룬다. 아래에서는 이 같은 경계에 있는 존재로서의 ‘재일’ 코리안이라는 아이덴티티 자체보다, 소설이 이러한 경계를 그리는 과정에서 무엇을 한국/한국인적인 것으로서 표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설은 K-POP 팬인 아즈사 같은 등장인물들 또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일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통해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한국인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예를 들어 아즈사가 처음으로 험한 데모를 목격하고 풀이 죽어 있자, 신오쿠보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한국인 유학생 중민은 그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마치 드라마처럼 “예쁜데 그런 얼굴을 하면 안 되지.”라고 위로한다. 이때 아즈사는 중민의 행동을 ‘한국 남자애들’이 할 만한 설레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아즈사는 자신이 그런 중민에게 가슴을 치며 “정말 가슴이 아파요”(チョンマル, カスミ, アッパヨ)(96쪽)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여주인공’ 같다고 느낀다. 중민이 아즈사라고 말할 때의 ‘즈’ 발음이 ‘주’에 가까운 것이 한국 아이들이 말하는 일본어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즈사가 가지고 있는 한국/한국인에 대한 호감은 무척 피상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그렇기에 한국 여행을 갔을 때도 수원화성에 가 보자는 지에의 제안에 역사에는 흥미가 없으면서 강남의 연예 기획사를 둘러보는 것을 택한다. 이는 아즈사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류 팬인 하나에(はな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험한 데모에 그나마 문제의식을 느끼는 아즈사에게 하나에는 그런 걸 굳이 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며 “나는 그냥 K-POP이 좋고 엑소를 사랑할 뿐이야.”(84쪽)라고 단언한다. 한국인과 연결해 주는 ‘K남자’(K男子)라는 앱으로 만난 한국인 남성과 연애하는 하나에에게 한국인이란 자존심이 세서 여자를 리드하기를 좋아하고 공주님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 주는, 드라마 속 한국인 남자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두 사람에 대한 이 같은 묘사는 한류 팬인 여성들이 정치·사회적 문제와는 단절되어 있으며 역사나 한일관계는 모른다는 일반적인 인식²⁸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한류 붐으로 촉발된 한국에 대한 이들의 관심이 가지는 한계는, 하나에도, 중민과 사귀게 되는 아즈사도 각자 한국 남성과의 연애가 유쾌하지 않게 끝이 나자 한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그라지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인을 싫어하는 부모에게 일본인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을 들킨 중민이 갑작스럽게 유학을 그만두고 돌아가는 바람에 일방적으로 헤어지게 된 아즈사는 자신은 한국을 싫어하게 됐다고,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도 잘 알게 됐다고 말하여 지에게 충격을 준다. “그러니까 넷 우익이 하는 한국이나 한국인 혐담도 지금은 좀 알겠다고 할까. 저쪽이 미워하니깐 이쪽도 미워한다고 할까”(247쪽), “지에도 일본이 좋지?”, “그럼 귀화해서 일본인이 되면 될 텐데”, “그 편이 훨씬 나아. 차별도 안 당하고”(250쪽)라는 아즈사의 말은 지에게 생각하듯 “K-POP과 한류와 재일은 전혀 다른 문제”(267쪽)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한편 이를 뒤집은 것으로서, 일본 여성들은 드라마나 아이돌을 통해서 본 한국인 남성의 모습을 자신들에게 덧씌울 뿐이니 그 허상을 연기하면서 이득을 취하면 된다고 말하는 중민의 아르바이트 동료와 같은 한국인 남성들이 있다. “나는 한국인이 정말 좋아”라고 말하는 아즈사에게, 일본 애니메이션 배우를 좋아해서 일본에 유학했다는 중민이 “일본 여자애들은 상냥한 애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일본인 여자애가 참 좋아.”(100쪽)라고 응답하는 장면은 이렇듯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들이 쌓을 이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물론 혐한 데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소설에서 무엇보다 문제시되는 것은 가령 전철의 천장 광고나 텔레비전 보도 같은 미디어에서 만들어지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다. 50대 한류 팬인 요시미(良美)는 혐한 데모를 목격한 뒤로 점점 더 카운터 데모에 열중하게 되는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싸움으로써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겠다며 열을 올리는 그의 태도가 살짝 붕 떠 있고 위태롭게 보이기는 해도, “실재하는 인간을 보지 않

28 平田由紀恵, 「第2章 韓流とその「愛のあと」: 韓国を消費する女性とその表象をめぐって」, 44~45쪽.

고 이미지를 만들어 내서”(145쪽) 대답하는 것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 자체는 이 소설도 공유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소설의 결말 부분에 이르러 지예를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별적인 인간으로 보고자 하는 아즈사의 변화나, 자신의 친구인 류헤이가 제일 한국인이었다는 것을 안 뒤로 헤이트 스피치에 괴로워하는 실재하는 사람들을 상상하는 사토의 모습은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보여 준다.

한편, 소설에서 지예와 류헤이는 자신이 제일 한국인임을 밝힘으로써 각자 일본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겪는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게 할 뿐 아니라 일본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을 무엇보다 먼저 (제일)한국인으로 인식하게 혹은 인식하지 않게 만드는 ‘한국인 됨’이란 소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여기서는 서류상의 국적이나 한국식으로 지어진 이름 외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실제로 일본인과는 다른 것으로서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주로 문화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소설은 지예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그가 아즈사와 만나기 위해 처음 가본 신오쿠보의 슈퍼에서 한국 식재료들을 보고 해외여행을 온 것 같은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장면을 그린다. 그리고 지예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집에 김치가 상비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가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아즈사에게 자신이 제일 한국인임을 밝히기 전에 긴장한 지예가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관광지 팸플릿의 초록빛 바다에 떨어진 빨간 김치양념을 보고 당황해서 물수건으로 얼른 닦아 내는 장면은 김치가 종종 한국인을 인종적으로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척 상징적이다. 일본인으로 귀화한 제일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유학 중인 류헤이가 한국에서는 일본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느냐는 일본인 친구의 질문에 “한국에 있으면 문화적으로는 역시 일본인이라고 깨닫는 한편, 아까처럼 한국을 디스하면 한국인이라는 프라이드가 몽게몽게 올라와서 화가 나거든”(206쪽, 밑줄은 인용자)이라고 답하는 것 또한, 문화가 에스닉한 분류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지에는 처음 가 본 명동 거리의 풍경이 이케부쿠로(池袋)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도쿄의 변화가와 비슷한 분위기에 익숙한 글로벌 브랜드의 체인점이 늘어서 있다. 그런 지에게 화장품 가게의 점원은 가끔 중국어로 말을 건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 / 여권을 보여주면서 걷는 게 아니니까. / 일본인도, 중국인도, 한국인도 피부색은 똑같다. 동작이나 분위기로 다들 마음 대로 판단한다. /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상관없게 느껴져서 일일이 생각하는 스스로가 바보 같아졌다.(36쪽, 밑줄은 인용자)

국적을 표기한 서류가 없다면 그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에가 스스로의 국적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동대문 패션빌딩의 점원들에게 그는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일본인 고객일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동작이나 분위기,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화장법,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것으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추측할 뿐이고, 지에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 하지만 수원화성에서 스스로가 일본인으로 귀화한 재일 한국인임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는 류헤이를 만났을 때, 지에는 자연스럽게 그에게서 한국인 혹은 일본인임을 보여 주는 표시를 찾는다.

어느 쪽이냐면 심플하고 말끔하게 생긴 얼굴이다.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냐고 물으면 일본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쪽의 한국인과는 미묘하게 다른 동작이나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지도 모른다.(46쪽, 밑줄은 인용자)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한국인 친구나 지인도 없고 처음으로 한국에 간 지 이제 겨우 이틀째인 지에가 이미 한국인과 일본인의 미묘하게 다른 동작을 구분하여 류헤이를 그의 말마따나 ‘문화적으로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

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이때 한국인임을 보여 주는 고유한 동작은 미묘 하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차이로서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재일은 일본과 한국, 양쪽 나라나 사람, 문화를 잘 알 수 있다”(259쪽)고 지예를 위로하는 류헤이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다름 아니라 한국/한국인과 일본/일본인의 경계라는 문제를 의식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부각되는 한국과 일본의 환원할 수 없는 차이다. 즉 국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이덴티티를 둘러싼 이야기가 오히려 각각의 아이덴티티에 부착돼 있는 이미지로 표현되는 문화적 차이를 뚜렷한 실체로서 그려 내고 마는 것이다.

이렇듯 소설은 미디어가 만들어 내고 유포하는 한국인 이미지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러한 이미지들을 다시금 만들어 내고 축적하는 아이러니컬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류헤이는 지예가 자신에게 재일 한국인임을 숨겼음을 알고 화가 난다. 그 생각을 하며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류헤이에게 사토는 왜 그런 표정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류헤이는 자신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데에 놀라며, “감정이 곧장 얼굴에 나오는 건 분명 한국 생활의 영향이다.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한국인 속에 있으면 자신도 그렇게 된다.”(222쪽)라고 생각한다. 한국 여자들은 다 성형을 하지 않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류헤이는 성형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답하지 않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니 갑자기 쌍꺼풀이 생긴 동급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196~197쪽)이라는 서술이 거기에 덧붙는다. 중민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 대한 서술들은 특히 더 그러한데, 지예나 류헤이와는 달리 한국인 유학생으로 그려지는 중민을 통해 소설에서 그려지는 한국이나 한국 사회가 어떠한 이미지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출신인 중민은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 ‘작통’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고 아즈사를 만나러 가고, 동생을 포함해 그의 가족이나 친척은 모두 전형적인 ‘반일’이다. 중민의 일본 유학을 설명하기 위해 소설은 한국이 격차사회로 “SKY라 불리는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중 하나를 나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학력이 없는 사람은 강한 연고

가 없으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SKY도 아니고 인맥도 없는 학생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유학해서 관록을 붙인다”고 쓴다(120~121쪽). 그가 아버지를 애써 설득하며 일본으로 유학한 이유는 전 여자 친구가 새로 사귄 남자 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한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기도 하다. 여자 친구는 중민이 군대에 간 사이에 이미 군대를 다녀온 두 살 많은 남자 로 ‘갈아탔는데’, “이는 한국 대학생 커플에게는 곤잘 있는 일”(122쪽)이다.

소설은 이처럼 류헤이나 중민의 관점으로 가령 한국은 구정이 메인이어서 짧은 신정 연휴가 끝나면 대학에서도 곧장 강의가 시작된다거나, 한국인은 독재와 군사정권을 경험한 기간이 길어서 국가와 사람을 나눠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소개한다. 정말 그런가? 적잖은 한국의 독자들이나 한국 사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은 이 같은 서술들이 정말로 문학의 외부에 있는 한국의 현실에 합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도 모르게 따지면서 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서술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다. 그보다 우선은 일본어를 독해하는 독자를 상정한 이 소설이 다른 사회 즉 한국과 관련된 이미지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언설들 중 하나가 됨으로써 생기는 효과이고, 또 이 소설이 읽히는 기반에는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한국·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감정 표현이 직설적이고 얼굴에 잘 드러나며 연장자에게는 일단 공손해야 한다는 등,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성립시키는 근거가 되는 생활문화와 같은 것은 독자들이 이미 대충 ‘한국인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미지들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발리바르(Étienne Balibar)에 따르면 오늘날의 ‘인종 없는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라 양립 불가능한 생활 형태나 전통 등 문화적인 차이를 내세운다. 여기서는 개인의 행동과 성향이 역사적인 문화로의 귀속을 통해 설명되고, 문화가 자연으로서 기능하며 개인이나 집단을 불변하는 기원을 통한 결정론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²⁹ 이 소설에서 또한 초록과 빨강이

29 エティエンヌ・バリバル, イマニュエル・ウォーラーステイン, 若森章孝 他 訳, 『人種・国民・階級: 「民族」という曖昧なアイデンティティ』, 唯学書房, 2014, 34~37쪽.

라는 여권의 색깔로 구별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계는 ‘한국인의 피’ 같은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을 기준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는 지에가 본 신오쿠보의 ‘이국적’인 풍경이나 호떡, 김치 같은 음식뿐만 아니라 K-POP이나 패션 같은 대중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전형적으로 ‘한국인’ 같다고 여겨지는 성격이나 특징적인 몸동작까지 포함된다. 바로 그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위에, 어떠한 인물은 한국인처럼 보이거나 다른 인물은 그냥 일본인처럼 보인다는 식의 구별도 작동한다. 여기서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은 인종들을, 한국인과 일본인을 식별하는 지표로서 다시금 구성되는 것이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의 일본어문학에 나타난 한국인 및 재일 코리안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어떠한 ‘한국인다움’이나 한국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소설에 등장하는 한국 인물들은 가령 대학에서, 일터에서, 거리의 곳곳에서, 다양한 미디어에서 점점 더 자주 접할 수 있게 된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 그 같은 아이덴티티와 소설의 주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때에도, 또 당사자가 아닌 작가들의 소설에서도 재일 한국인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늘었다. 즉 2000년대 이후의 일본어문학에서는 이문화로서의 한국을 대표하거나 특정한 한국인성을 보여 주기보다는 그 같은 에스닉한 분류로 환원되지 않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인물로서의 한국인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가들, 가령 호시노 도모유키나 히라노 게이치로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시선을 지향하는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이 같은 한국인을 전형적인 한국적인 인물로 그려 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물의 한국인성을 의식하고 있는 독자들이 그 같은 소

설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제시되는 인물의 성격적 특징들이 한국인인 인물과 결합하여 어떠한 종류의 한국인상을 거꾸로 두텁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가령 사람들의 우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학벌을 내세우는 인물로서 묘사되는 강, 딱 부러지는 성격을 가진 이화, 한일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군입대에 의의를 느끼는 이민준 같은 인물들 모두에게서,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설정되었을 수도 있는 특징들이 그들의 한국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읽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독자들은 『초록과 빨강』처럼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에 대해 의식적으로 고민하며 한국의 이러저러한 사정을 서술하는 책들을 보며 그것이 정말로 한국적인지 아닌지를 무의식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인이 등장하는 외국어문학에서 이들이 한국인 같은가 별로 그렇지 않은가를 논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한국어문학 속의 한국인 등장인물들을 대할 때처럼, 일본어문학의 한국인 등장인물들 역시 한국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특정한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데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본론에서는 또한 일본 사회의 구성원이 전보다 다양화되면서 제일 코리안 역시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중 하나로서 일본인 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화나 기도와 같은 인물들은 에스닉한 아이덴티티 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반면 『초록과 빨강』의 지에는 이들과는 달리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두 개의 아이덴티티 사이에서 스스로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는 혼란을 느낀다. 앞서서도 지적했듯 그 배경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 사회의 배외주의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사고하는 가운데 문화적 차이로서의 한국인성이 구성될 때, 그것은 한국인을 식별하는 표지로서 기능한다.

다시 한 번 『초록과 빨강』으로 돌아가 보면, 『한 남자』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에는 간토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알고 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워진다. 그리고 기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요코하마(横浜)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그러하듯, 지에 역시 다니는 대학이 있는 이케부쿠로

나 신주쿠(新宿), 세타가야(世田谷) 같은 가까운 지역에서 그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에 놀란다. 지금 일본의 배외주의적인 분위기와 간토대지진의 역사는 여기서도 겹쳐진다.

만일 커다란 재해가 일어나거나 하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토대지진 때처럼 갑자기 자신을 덮치고 학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짓눌렸다./ 다시금 신오쿠보에서 시위대가 “조선인을 때려 죽여라”라고 외치던 모습이 머릿속에 플래시백했다.(261쪽)

얼굴에 “한국인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도 전혀 문제없으니 까 아무도 그에게 위해를 가할 리 없는데도 신경이 과민해졌다.(263쪽)

호적 브로커인 오미우라가 사실상 일본인과 다름없는 용모를 지니고 일본어를 자기 언어로서 구사하는 기도를 단번에 제일 한국인으로서 구분해 내는 수수께끼의 장면을 여기서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다. 아무리 그 같은 집단적 아이덴티티와 무관하려고 해도, 일본 사회에는 한국인을 몽땅그러서 호명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정말로 “한국인을 죽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은 결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이 한국인임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낳는다. 한국인은 이제 일본 사회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타자가 되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어 내어 한국인들을 문화적으로 식별해 내고자 하는 움직임도 추동되는 현실이 그들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초록과 빨강』에서 누군가가 ‘한국인임’을 보여 주는 것은 한국 문화와 결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동작이나 몸짓이었다.

이 같은 상상을 밀고 나간 것이 이용덕(李龍德)의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찢러죽이기 전에』일 것이다. “배외주의자들의 꿈은 이루어졌다.”³⁰라는 문

30 李龍德, 『あなたが私を竹槍で突き殺す前に』, 河出書房新社, 2020, 6쪽. 번역은 필자에 의함. 한국어 번역은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찢러 죽이기 전에』, 시월이일, 2021.

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제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한일관계도 극도로 악화된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한 근미래 소설이다. 거기서는 예컨대 연장자와 함께 술을 마실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입을 가리는 등의 풍습이 “한국인다운 행동”으로서 한국인을 일본인과 구분하는 매뉴얼로 통용된다. 그리고 한국인으로 식별된다는 것은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지에나 기도처럼, 이 소설에서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차별에 대해 과민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설에 나오는 한 한국인 남성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다가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 아니다. 어느 날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하고 발치를 두 개 한 다음 고액 치료비를 청구 받은 것이 그 이유다. 그가 치과의사가 차별주의자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어쩌면 이견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나 공포, 그것을 아무래도 품고 마는 환경”³¹에 이끌리 나왔을 뿐이다. 정도야 다를지언정 이러한 의심과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한 피로는 아마 소설 속 등장인물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2022년 5월 현재, 일본의 포털사이트에 야후 검색창에 ‘한국인을’(韓國人を)이라는 단어를 쳐 보면 꽤 놀라운 연관 검색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차의 천장광고나 대형서점에서, 인터넷에서 한국인에 대한 불필요하게 적대적인 말들과 꽤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지금의 일본에서, 문학에 등장하는 한국인상과 일본 사회의 현재는 다소 괴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국인 등장인물들을 기존하는 사회의 당연한 일부로서 그려 내는 문학은 어쩌면 한국인이 있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상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을지 모른다. 자못 한국인 같든, 전혀 그렇지 않든, 한국인들은 현실에서처럼 소설 속에서도 그렇게 거기에 존재한다.

31 李龍徳, 『あなたが私を竹槍で突き殺す前に』, 172쪽.